

現代化와 韓國老人의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

최 성 재

(이화여대교수)

<차례>

I. 序 論	IV. 調査方法
1. 問題의 提起	1. 調査設計 및 標本抽出
2. 研究의 目的	2. 測 定
II. 理論的인 틀	V. 調査結果
1. 社會的 統合의 概念	1. 標本의 一般의 特性
2. 現代化에 顯著한 要因들	2. 各假說에 관한 調査結果
3. 現代化要因과 社會的 統合의 연결	VI. 討論 및 結論
III. 調査의 假說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個人的 自己가 속한 社會組織網에로의 統合은 人間의 基本的인 社會心理的 慾求이다.¹⁾ 그러므로 社會的 統合을 阻害하는 것은 個人에게 아노미(Anomie),²⁾ 心理的 壓迫(Psychological Stress),³⁾ 自己疏遠(Self-estrangement),⁴⁾ 또는 脫線行爲와⁵⁾ 같은 否定的인 結果를 超來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現代化는 個人的 社會的 統合을 阻害하는 否定的인 影響을 미친다고 널리 주장되고 있으며,⁶⁾ 특히 老人에게는 現代化에 연관되어 있는 反統合的인 勢力이 다른 年齡集團에게 비하여 甚사리 影響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現代化란 Cogill의 定義한 바와 같이, “한 社會 全體가 生物的인 動力(animated power), 制限된 技術, 比較적 未分化된 制度, 家父長的이고 傳統的인 展望과 價値觀에 바탕을 둔 比較적 田園的인 生活樣式에서 無生物的 動力(inanimated power), 高度로 發達된 科學的 技術, 分化된 個人的 役割에 相應하는 高度로 分化된 制度, 效率性과 發展을

* 본 논문은 필자가 1983. 11. 28. 미국 Ohio 주 Cleveland 소재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Modern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Aged into the Family”를 요약한 것임.

重視하고 巨視的인 展望에 바탕을 둔 壓度的으로 都市的인 生活樣式에로의 變遷”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現在의 韓國社會는 相當히 急速한 現代化 過程에 있는 社會라고 할 수 있다.⁹⁾

停滯된 農業經濟社會로서의 韓國은 世界二次大戰直後를 계기로 西歐思想의 流入과 現代의 教育의 大衆化로 因하여 本格的으로 現代化되기 始作하였고 특히 1960年代 初期以後의 急速한 産業化로 因하여 現代化는 加速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現代化를 客觀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主要 社會經濟指標를 보면, 우선 産業生産構造에 있어서 二, 三次産業生産의 全體産業生産에 對한 比率이 1960年의 59%에서 1980년에는 83%로 증가하였고 그에 相應하는 고용구조를 보면, 二, 三次産業에의 고용의 전체고용에 對한 比率이 1965年의 31%에서 1980년에는 66%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¹⁰⁾ 이와 같은 産業化에 수반하여 都市化現象도 顕著하여 1960年의 都市人口가 全體人口의 28% 밖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80년에는 57%로 증가하였다.¹¹⁾

의료기술의 發展, 公衆衛生의 向上 및 生活水準의 向上 등으로 因하여 壽命이 크게 연장되고 있는 바¹²⁾ 平均수명을 보면 1960년에 男女 各各 51年과 54年이던 것이 약 20年後인 1979년에는 63세와 69세로 연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平均수명의 연장은 生産率의 低下와 함께 노령인구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現在 65세 이상의 老人이 全體人口의 3.9%인 150만 정도이며, 60세 이상의 老人은 6.2%인 240만 정도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老齡人口의 全體人口에 對한 構成比는 現代化된 선진산업사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1980年代 以後부터는 老齡人口가 急速히 增加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¹³⁾

家族은 가장 基本的인 社會體系이다.¹⁴⁾ 거의 모든 사람은 家族 안에서 태어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家族集團과 關係해서 生活하고 있다. 老齡期에 있어서는 個人의 關心과 접촉의 범위는 줄어들어 지역사회와 직업상 相關된 사람보다는 家族과 子女에게로 관심이 집중되게 된다.¹⁵⁾ 대부분의 韓國老人들에게도 家族이 그들 世界의 中心이 되고¹⁶⁾ 그들의 가치체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老人에게 있어서의 家族에로의 統合은 가장 큰 社會心理的인 課題이며 生活의 滿足度를 向上시키는 주요한 要素가 된다.¹⁷⁾

現代化가 老人의 家族에로의 統合을 阻害한다는 理論的인 立場은 단순히 하나의 假說이지 실제로 그것이 經驗的 次元에서 檢討된 바가 거의 없으며, 특히 韓國社會에서는 그것에 對한 直接的인 研究가 現在까지는 없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本研究는 現代化에 있어서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2.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은 다음과 같은 3가지 目的을 지니고 있다.

첫째, 西歐의 社會文化的 맥락 속에서 형성 발전되어 온 老化(Aging)에 관련된 理論이 韓國의 社會文化的 여건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단순히 假定되고 있는 現代化의 老人의 社會的 統合 특히 家族에로의 統合에 對한 否定的인 영향을 經驗的 調査를 통해 검증하려는 것이다.

셋째, 韓國社會의 老人을 爲한 社會福祉政策 수립에 필요한 하나의 理論的 根據를 提共하는 것이다.

II. 理論的인 들

I. 社會的 統合의 概念

社會的 統合은 일반적으로 社會的 體系의 部分들을 짜맞춰 하나의 全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¹⁸⁾ 이러한 意味에서 社會的 統合은 2가지 觀點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體系의 觀點인데 社會的 體系들이 상호 어떻게 구분되고 조화되는가의 問題이고,¹⁹⁾ 다른 하나는 個人的인 觀點인데 個人이 어떻게 어떤 한 社會體系內에서 기능을 발휘하며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問題이다.²⁰⁾

本 研究에 있어서 社會的 統合은 個人的인 觀點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한 社會體系內에서 個人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主眼點을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의 社會的 統合에 있어서는 相互作用(Interaction)과 의미의 共通的 理解가 核心的인 要素가 된다고 본다. Weber에 依하면 행동이라는 것은 그 行爲를 하는 個人이 그 行動에 어떤 主觀的인 意味를 부여함으로써 社會的인 行動이 된다는 것이다.²¹⁾ 따라서 社會 또는 集團은 社會的인 行動을 하는 個人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集團의 行動은 個人的 社會的 行動이 합쳐져서 調和된 것이다. 個人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려고 하는지를 分明히 意識하고 그 行動에 부여된 意味를 攄으로서 自己의 行動을 他人의 行動에 조화시키는 것이다.²²⁾ 이러한 意味에서 個人的 觀點에서의 社會的 統合은 個人 行爲者의 意味에 對한 主觀的인 해석에 바탕을 두고 理解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本 研究에서의 社會的 統合은 한 個人이 자기가 속해 있는 社會的 組織網 속의 다른 構成員을 전체로 보고 그 全體와 相互作用을 하고 공통적인 意味를 나누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Rosow에 依하면 個人의 社會的 組織網 또는 社會體系로의 統合은 個人의 社會的 役割, 公式的 또는 非公式的 집단 構成員이 되는 것(membership), 그리고 社會的 價値라는 세 가지 勢力으로부터 생겨나며 유지되는 것이다.²³⁾ 다시 말하면 個人은 自己가 차지하고 있는 社會的 地位, 自己가 속한 집단과 그의 가치체계를 통하여 自己가 屬한 社會的 組織網에 結屬된다는 것이다.

2. 現代化에 顯著한 要因들

西歐 및 韓國에 있어서의 老化에 관련된 文獻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要因들을 老化와 연관하여 現代化에 현저한 특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

- ① 職業的 役割喪失과 그와 關聯된 役割의 喪失
- ② 老人의 同居形態의 核化
- ③ 世代간의 教育水準의 差異
- ④ 世代간의 價値體系의 差異

3. 近代化 要因과 社會的 統合의 연결

現代化에 顯著한 네 가지의 要因들은 個人을 社會體系에 統合시키는 세 가지 勢力인 社會的 役割, 集團의 成員이 되는 것과 社會的 價値體系에 關聯되어 否定的으로 作用함으로써 個人의 社會的 組織網에로의 統合을 阻害한다고 볼 수 있다.

現代化에 高유한 醫療技術의 발전은 人間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職業에서의 강제적인 退職을 制度化하게 하였다.²⁵⁾ 退職은 個人의 社會的 役割의 喪失을 不可避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역할의 상실은 역할수행에 필수적인 社會的 參與를 박탈하게 되고 역할의 혼돈과 부정형(role ambiguity)의 결과를 가져오며,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은 個人을 自己가 속한 社會的 組織網에서 疏外시키게 되는 것이다.²⁶⁾

現代化에 수반되는 都市化 및 職業制度上的 地域的 移動은 傳統的인 大家族의 住居形態를 瓦解시키고 世代間的 空間的 分離를 超來하며 新居制(neolocal) 結婚 및 小家族을 社會的 規範으로 成立시키고 있다.²⁷⁾ 이와 같은 世代間的 住居의 空間的 分離는 世代間的 相互作用의 機會를 감소시키게 되고 따라서 老人의 家族에로의 統合을 阻害하는 결과를 超來한다고 본다.²⁸⁾

教育은 새로운 知識을 習得하는 手段인 同時에 社會化의 道具가 된다. 社會가 일단 現代化의 過程에 들어서게 되면 子女世代는 父母世代보다 더 높은 水準의 教育을 받게 되는 것이 一般的인 現象이다.²⁹⁾ 世代間的 教育水準의 差異로 因하여 年上 世代는 그들의 보다 조속한 社會化의 역할을 經驗할 수 없게 되고 年下 世代들의 經驗과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세대間的 教育水準의 差는 知的, 文化的 및 道德的인 面에 있어서 老人世代를 그들의 年下 世代들로부터 分離 疏外시키는 結果를 超來할 수 있다.³⁰⁾

세대間的 價値指向(value orientation)의 差異는 教育水準의 差異와 聯關되어 現代化에 수반하는 특징적인 現象으로 볼 수 있다. 社會的 統合이 相互作用의 主觀적인 의미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社會적 가치, 信念 또는 의견의 合致 또는 類似는 社會的 統合의 기본적인 한 要因이 된다고 본다.³¹⁾ 세대間的 價値取向의 差異는 個人間的 心理的 갈등을 超來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은 老人을 자녀들로부터 情緒的 및 物理的으로 分離 疏外시킴으로 老人의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을 저해하는 結果를 超來할 수 있게 된다.³²⁾

以上과 같은 理論的인 틀에 依하면 現代化에 顯著한 4가지 要因들이 韓國社會에 있어서 老人들의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으로 假定된다.

III. 調查의 假說

以上에서 論한 理論的인 틀에 근거하여 現在까지의 關聯된 社會調查의 結果를 檢討하고 韓國의 社會文化的 特性을 考慮하여 다음과 같은 9개의 假說을 設定하였다.³³⁾

假說設定에 關聯하여 위에서 論한 4가지의 現代化關聯要因 以外에 現在까지의 調查研究에 依하면 社會經濟的地位, 個人의 健康狀態 및 性別의 差異가 老人의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主要要因으로 밝혀졌다.³⁴⁾ 本 研究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現代化에 관련없는 要因들의 影響을 統制함으로써 現代化關聯要因들과 老人의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의 關係를 明確히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假說 1 : 性別, 社會經濟的地位, 健康狀態를 統制하면, 公式的인 職業的 役割을 하고 있는 韓國老人이 公式的 職業役割을 하고 있지 않는 老人보다 家族에 보다 잘 統合이 되어 있다.

假說 2 : 性別, 社會經濟的地位, 健康狀態를 統制하면, 結婚한 자녀와 同居하고 있는 老人이 結婚한 子女와 同居하고 있지 않는 老人보다 家族에로 보다 잘 統合이 되어 있다.

假說 3 : 性別, 社會經濟的地位, 健康狀態를 統制하면, 老人과 자녀들간의 教育水準의 差異가 크면 클수록, 그 老人은 家族에로의 統合의 程度가 낮다.

假說 4 : 性別, 社會經濟的地位, 健康狀態를 統制하면, 老人과 子女들간의 家族生活의 價値觀에 있어서의 差異가 크면 클수록 그 老人은 家族에로의 統合의 程度가 낮다.

假說 5 : 職業活動의 有無에 상관없이 女子老人은 男子老人보다 家族에로 더 잘 統合되

어 있다.

假說 6 : 社會經濟的인 地位가 높은 老人은 社會經濟的인 地位가 낮은 老人보다 家族에로 더 잘 統合되어 있다.

假說 7 : 健康狀態가 좋은 老人은 健康狀態가 좋지 않은 老人보다 家族에로 더 잘 統合이 되어 있다.

假說 8 : 韓國男子老人 가운데 家族에로 가장 잘 統合되어 있는 老人은 (1) 일을 하고 있고, (2) 結婚한 子女들과 同居하고 있고, (3) 教育水準에 있어서 子女들과 差異가 적고, (4) 家族生活의 價値觀에 있어서 子女들과 差異가 적고, (5) 社會經濟的인 地位가 높고, (6) 健康狀態가 좋은 老人이다.

假說 9 : 韓國女子老人 가운데 家族에로 가장 잘 統合되어 있는 老人은 (1) 結婚한 子女와 同居하고 있고, (2) 教育水準에 있어서 子女들과 차이가 적고, (3) 家族生活의 價値觀에 있어서 子女들과 差異가 적고, (4) 社會經濟的인 地位가 높고, (5) 健康狀態가 좋은 老人이다.

IV. 調查方法

1. 調查設計 및 標本抽出

本研究는 現代化要因들과 家族에로의 統合의 相關關係를 규명하면서 그 裏面에 因果關係를 추구하려는 意圖도 지니고 있으므로 가장 적합한 조사실제는 實驗調查 또는 類似實驗調查이지만 現實的으로 現代化要因들을 實際 造作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므로 非實驗的인 調查로서 어떤 現象을 自然的인 상황에서 同時에 관찰하는 橫斷的調查設計(cross-sectional design)를 利用할 수 밖에 없었다. 橫斷的인 調查設計는 現象 또는 變數間의 단순한 相關關係를 규명하는 데는 問題가 없으나 時間差를 둔 獨立的인 觀察를 할 수 없어 인과관계의 규명에는 問題가 있다. 그러나 본 研究에서는 獨立變數인 現代化要因 및 統制變數의 特徵에 따른 集團으로 구분하여 集團間의 家族에로의 統合程度의 差異를 봄으로써 現代化要因과 家族에로의 統合의 關係를 因果關係的인 의미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統制變數는 調查의 항목에 包含 측정하여 統計的으로 統制하도록 設計하였다.

本 調查研究의 母集團은 韓國에서 가장 現代化된 地域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거주 人口 중 1981년 10월 현재의 60세 이상의 노인 396,000명이었다. 표본추출의 理論에 依하면 母集團의 分布가 不確實할 때 95%의 信賴水準을 유지하려면 396,000명

의 모집단에 대한 最少限度의 標本의 크기는 384 명이 되어야 하지만 本調査는 結果를 母集團에 一般化시키는 것보다는 現象間의 相關關係를 규명하는 데 그 一次的인 目標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384 명 이상의 標本 크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³⁵⁾ 調査의 時間, 費用 및 실시의 可能性 등을 고려하여 120 명만 最終分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標本으로 추출하였다. 標本抽出의 方法은 性別, 職業有無, 住居形態를 구분하여 多段階的集落層化無作為標集方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利用하였다. 서울시의 417 個洞中에 4 個洞을 無作為로 선택하고 各洞에서 다시 5 個統을 無作為로 선정하고 各統의 60 세 이상의 老人을 性別, 職業유무 및 住居形態별로 나누어 다시 各統에서 6 명 석을 추출하여 120 명의 標本을 확정하였다. 職業을 가진 여성老人이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職業의 유무에 따른 여성老人의 抽出에 難點이 많아 여자에 對해서는 職業유무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2. 測 定

1) 變數에 關한 操作的 定義

各變數에 關한 操作的 定義에 앞서 老人에 關한 操作的 定義가 必要하다. 本研究에서는 편의상 주로 社會立法的인 面에서 意義가 큰 曆年齡(Chronological Age)를 基準으로 老人을 定義하였다. 先進產業社會에서는 一般的으로 65 세 이상의 者를 老人으로 定義하고 있지만 本研究에서는 韓國의 社會文化的 및 社會立法的 條件을 고려하여 60 세 이상의 者를 老人으로 定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다.³⁶⁾

가. 獨立變數

① 職業的 役割의 喪失: 現在 公式的으로 보수를 받는 일에 關여하고 있지 않거나 關여하여도 週當 20 시간 以下로 關여하고 있는 狀態로 定義한다.

② 同居形態: 老人이 現在 누구와 같이 同居하고 있느냐에 따른 分類로서 擴大家族 유형은 老人이 結婚한 子息 중의 한 子息과 같이 同居하고 있는 住居形態로, 核家族 유형은 老人이 結婚한 子녀와 同居하고 있지 않거나 未婚子女와 同居하고 있는 形態로 규정하였다.

③ 教育水準: 正規學校의 教育을 받은 年數로 보고 教育水準의 차이는 老人의 教育年數와 18 才 以上の 子女들의 平均教育年數와의 차이로 정의한다.

④ 家族生活價値指向: 가족주의, 효도주의 및 권위주의를 반영하는 18 개 문항으로 된 가족생활가치취향척도에 의해 얻어진 점수크기로 定義한다.³⁷⁾

나. 從屬變數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 : 고독감, 소외감 및 유용성의 면에서 응답자인 老人과 자녀들과의 關係를 반영하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의 척도상의 점수의 크기로 定義한다.³⁸⁾

다. 統制變數

① 社會經濟的地位 : 韓國老人의 特性을 고려하여 老人이 속한 家庭의 生活水準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② 健康狀態 : 老人 個人의 健康狀態 일반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로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測定道具의 開發

本 研究를 위하여 가족생활가치지향척도 및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척도 2가지를 開發하였다. 家族生活價値指向尺度는 家族主義, 孝道主義 및 權威主義의 3가지 측면 各各에 대한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총 18개 문항의 척도를 Pretest를 통하여 開發하였는데 척도의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Alpha는 0.80이었고 本 調査에서는 0.92로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척도의 타당도는 준거집단에 의한 검증방법(Criterion-related validation)을 취하였다.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尺度는 고독감, 소외감, 유용성의 3가지 측면 各各에 대한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총 18개 문항의 尺度를 역시 Pretest를 통하여 開發하였으며 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0.91이었고 本 調査에서는 0.87로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척도의 타당도도 역시 준거집단에 의한 검증방법을 취하였다.

3) 資料蒐集 및 分析

資料는 18개의 問項과 閉鎖型應答으로 構成된 질문지에 의하여 調査者가 應答者의 家庭 및 職場을 訪問하여 直接 面談하여 蒐集하였다. 面談前에 選定된 豫상응답자에게 調査의 目的, 標本선정의 方法, 면담예정시간, 面談에 응했을 때의 사례약속, 調査訪問者의 신분 확인을 위한 사진 등을 실은 서신을 보내어 응답자에게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面談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전 안내소개서신의 반응은 좋았으며, 응답자의 협조를 얻는데 效果가 컸다.

資料分析은 Computer의 統計分析節次를 이용하였는데 公變變數分析(Analysis of Covariance), t 검증, 단순상관관계(Zero-order Correlation), 部分相關關係(Partial Correlation),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利用하였다.

V. 調查結果

1. 標本의 一般의 特性

응답자의 年齡分布는 60才에서 89才까지의 범위에 있었고 平均年齡은 68.6才였으며 男子는 67.8才, 女子는 69.5才였다. 배우자와의 同居여부에 있어서는 男子의 80%, 女子의 26.7%가 배우자와 同居하고 있었다. 이들의 平均教育水準은 4.5年の 정규학교 教育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별 平均에 있어서는 男子는 7.2年, 女子는 1.8年은 教育을 받은 점과 응답자의 48.3%가 無學이었음은 特記할 사실이다.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生活水準은 上이 11.7%, 中이 46.7%, 下가 41.6%였는데 전반적으로 보아 중간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편(3점 척도에서 1.7점)이었고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健康狀態에 있어서는 좋은 편이 37.5%, 보통이 30.8%, 나쁜 편이 31.7%의 分布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응답자의 健康狀態는 보통수준보다 약간 이상(5점 척도에서 3.125점)이었고 여자에 비하여 남자가 약간 더 나은 健康狀態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의 분포를 1981년 全國單位로 추출된 표본에 의한 韓國 Gallup 調查研究所의 통계와³⁹⁾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 선정된 120명의 標本이 母集團에 對한 代表性(Representativeness)을 상당히 높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調查의 結果를 一般化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利點을 가지고 있었다.

2. 各假說에 관한 調查結果

1) 職業的 役割喪失과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

上述한 바와 같이 女子老人에 對해서는 職業의 有無에 따른 標本抽出을 하지 않았으므로 女子老人에 對한 職業역할의 상실과 家族에로의 統合의 관계는 검증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男子老人 60명에 對해서만 分析하였다. 첫째, 統制變數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하고 있는 집단의 社會的 統合의 평균점수는 66.394였고 일을 하지 않는 집단의 점수는 58.529였는데 두 집단의 점수를 비교한 t-test의 결과 t값 3.21이 $p < .01$ 수준에서 유의도가 있는 값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일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더 잘 家族에로 統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統制變數의 영향을 배제한 경우인데 통제변수를 공변변수(covariance)로 보고 공변변수분석의 통계절차를 이용해서 통제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였다.⁴⁰⁾ 이 경우 일하는 老人集團의 社會的 統合의 평균점수는 66.895였고 일하지 않는 老人集團의

점수는 57.838로 두 집단의 차이를 볼 수 있는 F점수 13.428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도가 있었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社會經濟的 지위와 健康狀態가 같은 조건이더라도 일을 하는 老人이 일을 안하는 老人보다 가족으로 더 잘 統攝이 되어 있었다.

本 假說을 正確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對한 分析도 가능해야 했었다. 여성에 對한 分析의 結果가 역시 남성과 같았다면 本 假說이 完全히 證明이 되었을 것이고 分析의 結果가 남성의 경우와는 달랐다면 男女集團의 차이는 性別차와 다른 變數間의 相互作用의 영향인 것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實質的인 分析의 結果에 의하면 男子老人에게만 그 假說이 證明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 同居形態와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攝

統制變數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았을 경우 기혼자녀와 同居하는 老人集團의 社會的 統攝의 平均點數는 61.78이고 기혼자녀와 同居하지 않는 老人集團의 點數는 59.90으로 前者가 後者보다 다소 점수가 높기는 하나 t-test의 結果의 t값 0.331은 $p < .05$ 수준에서도 통계적 유의도가 없음이 밝혀졌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기혼자녀와 同居하고 있는 老人이 기혼자녀와 同居하지 않는 老人보다 더 잘 家族에로 統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은 統制變數의 영향을 배제한 후의 두 변수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性別의 統制는 남여 各各 分離分析으로 社會경제지위와 健康狀態는 공변변수로 인정하여 통제하였다.⁴¹⁾ 男子老人에 對한 分析 結果는 대가족형 老人集團의 社會的 統攝의 平均점수 63.048이 核家族型的의 노인집단의 점수 61.686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두 집단의 비교의 差를 볼 수 있는 F점수 0.238은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도 기혼자녀와 同居老人이 기혼자녀와 同居하지 않는 老人보다 더 잘 家族에로 統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女子老人의 分析結果, 大家族型的의 老人集團의 社會的統攝 平均點數 58.916이 오히려 核家族型的의 老人集團의 점수 59.117보다 조금 낮은 現象을 보였지만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는 F점수가 0.003이어서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差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배제한 후 즉, 社會經濟的地位 및 健康상태가 같은 條件이면 기혼자녀와의 同居老人이 기혼자녀와의 別居老人보다 家族에로 더 잘 統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응답자 全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性別, 社會경제적 지위 및 健康상태의 條件이 같건 안같건에 關係 없이 기혼자녀와 同居하는 老人이 同居하지 않는 老人보다 家族에로 더 잘 統攝되어 있다

고 할 수 없다. 다음에는 老人의 주거형태를 ① 老人세대만의 경우, ② 미혼자녀와 同居, ③ 기혼아들과의 同居, ④ 기혼딸과의 同居로 細分化하여 앞서와 같은 方法으로 分析하였다. 男女 各各의 경우 모두 社會的 統合의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보면 ① 기혼아들과의 同居, ② 미혼자녀와의 同居, ③ 老人세대만의 경우, ④ 기혼딸과의 同居 순으로 예상한 바대로의 순서였으나 공변변수의 분석결과에⁴²⁾ 의한 F점수 0.316 및 0.875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老人의 住居形態와 家族에로의 統合에 관하여는 老人의 同居形態가 老人의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結論지을 수 있었다.

3) 世代間的 教育水準의 差異와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

應答者인 老人의 平均教育年數는 4.508年이었고, 자녀들의 平均教育年數는 10.767年이었다. 教育水準의 差異는 子女의 平均教育年數에서 老人의 教育年數를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첫째 통제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았을 때는 教育水準의 差와 家族에로의 統合과의 단순상관관계계수 Pearson's r 이 $p < .05$ 수준에서 -0.19 이었다. 두 변수의 相關關係는 약한 편이었으나 統計적으로 有意味한 負의 相關關係였다. 즉 老人의 子女와의 教育水準의 差異가 클수록 家族에로의 統合程度는 약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統制變數의 영향을 배제한 경우는 教育水準의 差異와 家族에로의 統合의 部分 相關關係는 $p < .05$ 의 수준에서 $r = -0.19$ 였다. 통제변수의 통제는 部分상관관계 절차를 利用하여 통제하였다. 이 결과 역시 위의 경우와 같이 통제변수의 영향을 배제하면, 즉 性別, 社會경제적 지위 및 健康상태의 조건이 같은 경우 老人의 子女와의 教育水準의 差異가 크면 클수록 老人의 家族에로의 統合에로의 정도는 약했다.

4) 世代間的 價値指向의 差異와 家族에로의 統合

老人의 가치지향척도상의 平均點數는 77.03이었고 子女들의 점수는 64.57이었다. 가치지향의 차이는 老人의 점수에서 老人이 평가한 자녀들의 가치지향의 점수를 뺀 것으로 計算하였는데 차이점수의 범위는 0에서 53에 걸쳐 있었고 차이점수의 平均은 12.46이었다. 老人集團과 子女集團의 平均점수의 비교한 t -test의 t 값 9.16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져 老人은 자녀들에 비하여 보다 전통적인 家族生活의 價値觀에로의 指向을 보이고 있었다. 가치지향의 差異와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에 있어서 첫째, 통제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p < .01$ 수준에서 $r = -.45$ 의 상당히 강한 負의 상관關係를 나타냈다. 즉, 性別, 社會경제적 지위 및 健康상태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았을 때는 老人이 家族生活의 價値觀 取向에 있어서 子女들

과 差異가 크면 클수록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의 程度가 낮았다.

다음에 統制變數의 영향을 제거한 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는데 성별의 통제는 男女 各 各의 分離分析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및 건강상태는 部分相關關係의 절차로 統制하였다. 男子老人의 경우 통제변수 통제후의 부분상관관계는 $r = -.073$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없어졌고, 女子老人의 경우 통제변수 통제후의 부분상관관계는 $r = -.627$ 로 상관관계가 변수통제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 分析의 결과는 남자의 경우는 社會經濟的地位와 건강상태가 같으면 老人의 자녀와의 家族生活의 價値觀의 差異와 家族에로의 統合間에는 相關關係가 없어지게 되었고, 여자의 경우는 가치관의 차이와 家族에로의 統合의 상관관계는 더 強化되어 老人의 자녀와의 家族生活의 價値觀의 差異가 크면 클수록 老人의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의 程度는 낮아지게 되었다.

性別差異에 따른 相關關係의 變化現象을 일단 性別差異와 價値指向差異의 相互作用 또는 複合的 效果로 보고 회귀분석으로 그 相互作用의 效果를 찾아보았다. 相互作用의 效果를 고려하기 前과 後의 결정계수 R^2 의 變化의 差異를 본 F점수 5.198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는 性別差異와 價値觀의 差異의 相互作用으로 因하여 男女間의 家族에로의 統合에 差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教育水準의 差異와 價値指向의 差異는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다는 理論的 근거를 가지고 價値指向의 差異를 통제했을 경우 教育水準의 差異와 社會的 統合의 相關關係가 통계적 유의도가 없는 정도로 떨어짐을 발견하였다. 즉 教育水準의 差異는 價値指向의 差異를 通하여 社會的 統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서 教育水準의 差異에 있어서 男女間의 差異가 統計的으로 유의할 정도였음($t = 1.98, p < .05$)을 고려하면 결국은 價値取向의 差異와 性別의 差異와의 相互作用效果는 子女들과의 教育水準의 差異가 男女間에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5) 性別差異와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

假說 5에서 職業의 有無에 관계없이 女性이 男性보다 家族에로 잘 統合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假說은 職業이 있는 老人을 男女로 나누어 비교하고 또한 職業이 없는 老人도 男女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검증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本研究의 標本에는 女子老人에 對한 職業有無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假說을 정확히 검증할 수 없었다. 本研究에서는 단순히 男女 두 집단의 社會的 統合의 점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假說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예상과는 반대로 男子의 社會的 統合의 點數가 62.367 이었고, 女子의 점수는 59.017 이어서 男子가 女子보다 높았지만 t-test의 결과 t값 1.51은 $p < .05$ 수준에

서 통계적 유의도가 없었으므로 두 집단간에는 社會的 統合에 差異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女子老人이 男子老人보다 家族에로 더 잘 統合이 되어 있다는 假說은 본 조사에서 증명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서의 分析과 이후의 分析에서 밝혀진 것을 종합하면 성별의 差異가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는 않았지만 가치취향의 差異,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相互作用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즉 男子老人의 경우는 가치취향의 差異는 家族에로의 統合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社會經濟的 지위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반면 女子老人의 경우 가치취향의 差異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6) 社會經濟的 地位와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

두 변수의 관계는 단순상관관계를 봄으로써 알 수 있는 바, 상관관계계수 $r = 0.22$ 였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약한 편이었지만 $p < .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였다. 이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家族에로 잘 統合이 되어 있었다. 성별의 差異와 社會經濟的地位의 相互作用으로 因하여 男子老人의 경우는 社會經濟的地位가 社會的 統合과 상당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r = 0.40, p < .01$), 女子의 경우는 相關關係가 統計的 有意度 以下로 약한 관계에 있었다.

7) 健康狀態와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

두 변수의 관계는 단순상관관계를 봄으로써 알 수 있는 바, 상관관계계수 $r = 0.28$ 이었다. 이 관계는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였다. 즉 건강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家族에로의 統合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건강상태와 성별차와의 相互作用은 統計的으로 유의할 만한 정도가 되지 못했다.

8) 現代化要因變數 및 統制變數의 組合과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

앞의 각 假說의 檢證에서 밝혀진 바를 綜合하면 男子老人의 경우는 ① 職業을 갖고, ② 教育水準에 있어서 자녀들과 差異가 적고, ③ 生活水準이 높고, ④ 健康狀態가 좋은 老人이 相對的으로 더 잘 家族에로 統合되어 있었다. 이 네 變數가 총체적으로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의 變量(variance)의 40.32%를 설명할 수 있었다($R^2 = 0.4032$).

女子老人의 경우는 ① 教育水準에 있어서 자녀와의 差異가 적고, ② 家族生活의 價値指向에 있어서 자녀와의 差異가 적고, ③ 健康한 老人이 相對的으로 더 잘 家族에로 統合되어 있었다. 이 세 變數에 依해서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의 變量의 41.64%를 설명할 수 있었다($R^2 = 0.4164$).

VI. 討議 및 結論

앞에서 各 假說을 검증하기 위한 資料를 分析한 結果를 그 理論的 배경과의 관련성, 社會福祉政策에의 관련성 및 調查의 制限點을 中心으로 討議함으로 結論을 지을려고 한다.

假說 1의 직업적 역할의 有無와 家族에로의 社會的統合의 關係에 있어서 本研究에서는 標本 자체의 制限點 때문에 그 假說을 充分히 檢證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男子老人에게 있어서 是 現代化에 현저한 현상인 職業역할의 상실은 그들의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에 分明히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現代化하고 있는 韓國社會에서 老人이 계속해서 家計收入의 提供者로서의 役割을 유지한다는 것이 老人을 家族에로 統合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一般的으로 退職年齡이 55세로 制限되어 있는 時期상조의 강제적인 退職制度는 韓國老人을 家族에로 統合시키는 勢力을 크게 弱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本研究의 結果는 社會的 役割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社會心理的인 因果關係를 통하여 결국은 老人을 그의 社會的 組織網에로 統合시키는 힘이 된다는 理論的인 立場을 지지하고 있다.

社會的 접촉의 범위가 축소하게 되고 따라서 관심의 대상이 家族에로 더욱 집중되고 있는 老人에 있어서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은 가장 주요한 社會心理的 慾求이며 또한 課題라고 할 수 있다. 韓國의 社會文化的 전통과 규범은 老人을 家族內에서 保護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바 韓國에 있어서 老人福祉의 政策目標中의 하나는 老人의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을 向上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政策의 目標와 관련하여 보면 本 研究의 結果는 老人福祉의 政策形成에 유용한 理論的 근거를 提供하게 될 것이다. 加速的인 現代化 過程속에 있는 韓國社會에 있어서 時期상조의 退職은 老人들로 하여금 自己家族集團에로의 統合의 힘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現代化의 과정 속에서 점차 많은 人들이 고용관계에 의한 임금노동으로 家族生計의 수입을 얻는 傾向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職業적인 役割을 가진다는 것이 점점 더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예상되므로 退職으로 인하여 職業적 役割을 상실케 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또는 다른 職業에로의 전직으로서 職業적 役割의 상실을 방지할 수 있는 對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本 연구의 結果는 現在의 一般的인 55세를 전후한 一般 임금노동자들의 退職年齡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老人에 적절한 職業을 개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老人에게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本研究의 두번째 假說인 老人의 同居形態와 家族에로의 社會的統合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못했다. 現代化에 따른 老人住居形態의 核化 卽 老人의 자녀와 分離住居는 老人의 家族에로의 統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韓國의 社會文化的 여건에서 老人이 자녀와 分離住居하고 있다는 것이 老人의 家族에로의 統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本研究의 資料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同居와 빈번한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은 個人을 社會的으로 統合시킨다는 이론적 立場과 일치하지 않았다. 즉 物理的으로 同居하는 것이 반드시 老人을 家族에로 統合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不可避한 理由로 인한 同居는 오히려 世代間의 갈등과 여러 가지의 社會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老人을 家族에게서 소외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3세대의 同居가 老人에게 있어서 韓國의 社會文化的 전통에 맞는 이상적인 住居形態라는 立場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老人福祉의 政策은 老人의 同居形態에 對한 관심보다는 앞에서 밝혀진 老人의 생활수준 또는 재정적인 형편을 向上시키는 데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本研究의 세번째 假說에 관한 검증의 결과는 老人과 子女들과의 教育水準의 差異가 크면 클수록 老人의 家族에로의 社會的統合의 정도는 낮다는 假說을 입증하였다. 이 假說의 입증은 現代化로 因하여 야기되는 老人과 子女들과의 教育水準의 差異는 老人의 家族에로의 統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理論的 立場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本假說의 입증과 관련된 政策的인 面에서의 고려는 老人의 子女들과의 教育水準의 차이를 좁히는 方法으로 老人에 對한 성인교육의 Program을 개발확대하는 것이다. 現在의 노인정 및 노인大學 등의 Program을 이러한 面에서 더욱 研究 發展시킬 必要가 있다고 본다.

本研究의 네번째 假說인 老人과 子女와의 家族生活의 價値觀取向의 차이와 家族에로의 社會적 통합에 對한 검증의 결과를 보면 性別의 差異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老人全體에 對한 일반적인 관찰은 老人의 子女와의 가치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老人의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의 程度는 낮다 볼 수 있으나, 男女를 分離해서 보면 男子老人의 경우는 가치관의 차이가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女子老人의 경우는 價値觀의 차이와 家族에로의 社會的統合은 강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部分的으로는 性別差異와 價値觀의 차이의 相互作用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女子老人의 特徵으로서 男子老人에 비한 전반적인 教育水準의 저하가 결국은 價値體系의 差異를 가져오고 이것이 社會的 統合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견된 주요한 이론적인 立場은 老人에 있어서의 자녀들과의 教育水準의 차이는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가치관의 差異를 통제하면 教育水準의 차이와 社會的 統合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Shively와 Shively의 研究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⁴³⁾ 老人에 있어서의 價値指向은 다른 어떤 要因보다도 教育에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본다. 이 假說과 相關된 政策的 고려는 앞의 教育水準의 차이와 사회적 통합에서와 같이 성인교육 Program을 통하여 老人의 가치관을 전통적인 態서 현대적인 方向으로 접근시키며 또한 젊은 자녀세대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다 잘 이해하여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本研究에서 特記할 만한 발견으로 男女 差異와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에 관한 假說인데 男女의 性別차는 직접적으로 老人의 社會的 統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要因들 예를 들면, 가치지향의 차이, 社會經濟的 地位 등과 결부된 相互作用으로 간접적으로 老人의 社會的 統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性別차의 간접적인 영향은 다른 變數 또는 現象에도 나타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의 研究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男女間의 차는 政策뿐 아니라 實際의 社會福祉 Service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社會經濟的 地位 및 健康狀態와 老人의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에로의 關係는 일반적으로 假說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도 역시 男女의 性別차이와의 相互作用 效果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 지위 특히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老人이 家族에로 잘 統合이 되어 있다는 假說의 입증은 특히 저소득층의 老人에 對한 政策的인 재정지원을 시사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대상을 확대시키고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것과 連관성을 갖고 있다.

끝으로 本研究는 제한점을 제시함으로 本研究의 結果를 해석하고 일반화시키는 데 參考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 연구에 相關된 앞으로 研究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本研究는 標本의 크기가 充分하지 못하여 結果를 일반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20명의 標本크기는 그 일반적 特性에 있어 전국적 단위원본과 유사점이 많지만 그 結果를 서울시에 한하여 국한시키는 데도 위험성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 結果를 韓國의 全都市 또는 전체의 老人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신중하고 세심한 주의가 要望된다.

둘째, 現在 職業을 갖고 있는 女子老人을 統計分析에 必要한 數만큼 包含시키지 못했으므로 職業의 有無에 따른 社會的 統合과 性別의 차이에 의한 사회적 통합의 差異를 完全

히 검증할 수 없어 관련된 假說과 그 결과의 해석에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가치지향의 척도에 있어서 자녀의 가치지향은 자녀에게서 직접 얻은 Data가 아니라 자녀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하리라고 인식되는 것을 老人에게서 얻은 것이므로 가치지향에 있어서의 老人과 子女들과의 차이는 실제적인 차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넷째, 가정생활의 가치지향척도 및 가족에로의 사회적 통합의 척도는 척도의 작성을 위해 추출한 標本의 크기가 너무 적어 信賴度와 타당도가 충분히 확보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다섯째,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에 있어서의 家族의 정의는 老人의 立場에서 同居하지 않는 자녀까지 포함시켜서 家族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家族의 정의에는 상당한 論爭이 있을 수 있으나 老人의 立場에서 家族은 同居여부에 관계없이 仝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韓國의 社會文化的 여건에서 적합하다고 본다.

여섯째, 본 연구는 간접적으로 현대화 요인과 家族에로의 社會的 統合間의 因果關係 추구를 시도하였으나 어떤 현상의 관찰을 한 시점에서 하여 나온 결과로서의 因果關係의 추구는 제약점이 많으므로 특히 본 研究의 결과를 政策이나 직접 Service의 전달에 적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

*** 註 ***

- 1) Robert A. Nisbet, *The Social Bond* (New York : Alfred A Knopf, 1970) p. 18.
- 2) Emile Durkheim, *Suicide*, trans. J. A. Spaulding and G. Simpson (Glencoe, Ill. : Free Press, 1951), p. 209.
- 3) Ronald W. Mandersheid ; Sam Silbergeld ; and Edward Z. Dager, "Alienation : A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Cybernetics* 5 (1975), p. 95.
- 4) William Kornhauser, *Politics of Mass Society* (New York : Free Press, 1959), p. 108.
- 5)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 Free Press, 1957), pp. 176-180.
- 6) Irving Rosow, "And then We Were Old," *Trans-Action* 2 (January-February 1965), p. 23; Irving Rosow, *Social Integration of the Aged* (New York : Free Press, 1967), p. 10 ; Louis Wirth, "Urbanization as A Way of Life," *Am-*

- 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 (July 1938):11; George Maddox,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Aging," in *Aging: The Process and The People*, eds. Gene Usdin and Charles K. Hoffling (New York: Brunner/Mazel Publisher, 1978), p. 32.
- 7) George L. Maddox, p. 32; Wiebert E. Moore, "Aging and the Social System," in *Aging and Social Policy*, eds. John C. McKinney and Frank T. Deyver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6), pp. 39-40.
- 8) Denald O. Cowgill, "Aging and Modernization: A Revision of the Theory," in *Late life*, ed. Taber F. Gubrium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1974), p. 127.
- 9) 玄斗日, "韓國老人的 生活構造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 建國大學 學術誌 第20輯 (1976), pp. 463-465; 玄斗日, "韓國의 老人問題," 韓國社會科學研究所 주최 秋季세미나 발표논문, (1977. 9. 24); 河相洛, "韓國老人的 社會福祉政策," "韓國社會科學研究所 주최 秋季세미나 발표논문, (1977. 9. 24); 金東一, 農村老人的 社會心理的 特性: 아노미, 疏外意識 및 地域社會에 대한 態度的 分析," 「韓國老年學」第1輯(1980), p. 68.; 金聖順, 「老人福祉論」(서울: 二友出版社, 1981), pp. 13-17; 崔信德, "老人疏外, 孤獨問題," 「峨山」(1980 秋季號), p. 19; 張峻昊, "現代社會에 있어서 老人의 役割과 葛藤," 사단법인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주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82. 5.
- 10) Yonhap News Agency. *Korea Annual* 1981 (Seoul: Yonhap News Agency, 1982), p. 211.
- 11) Yonhap News Agency, p. 209.
- 12) 尹鍾周, "우리나라 老人問題에 대한 人口學的 考察," 「現代社會와 老人福祉」(第四회 福祉社會 심포지움)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편집 (서울: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3), p. 77.
- 13) *Ibid.*, p. 78; *Idem*, "우리나라 老人人口의 構造的 特徵과 그 展望," 「社會福祉」, 71號(1981 겨울호), p. 39.
- 14) Everett M. Rogers and Hans Sebald, "A Distinction between Familism, Family Integration, and Kinship Orientation,"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February 1962), p. 27.
- 15) Rosow, *Social Integration of the Aged*, p. 25.

- 16) 하상낙, "가정 및 사회에 있어 노인의 지위 및 권위의 변천," 문교부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한 논문, (1972), p. 29 ; 한국결핵조사연구소가 1981. 2 ~ 3월에 한국노인 1, 427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중 ○○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62%가 가족 및 자녀라고 답했는데 이는 노인의 가장 중심되는 세계는 가족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전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조사 1차보고서」 (서울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1) p. 91을 참조할것.
- 17) Jersey Liang ; Louis Dvorkin ; Eva Kahana ; and Florence Mazian, "Social Integration and Morale ; A Re - 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5 (September 1980), p. 753.
- 18)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968ed., S.V. "Social Integration," by R.C. Angell.
- 19) David Lockwood,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in *Exploration in Social Change*, eds., George Zollschan and Walter Hirsch (Boston : Houghton, 1964, pp. 244 - 57 ; Emil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 George Simpson (Glencoe, Ill. : Free Press, 1960), pp. 70 - 132 ;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Glencoe, Ill. : Free Press, 1951), pp. 3 - 23 ; Talcott Parsons, "Durkheim's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Integration of Social Systems," in *Emile Durkheim, 1858 1917 : A Collection of Essays with Translations and Bibliography*, ed. Kurt Wolf (Columbus, Ohio :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60), pp. 118 - 153.
- 20) *Dictionary of the Social Sciences*, 1964 ed., S.V. "Social Integration," by W.L. Kolb ; Irving Rosow, *Social Integration of the Aged*, pp. 8 - 9 ; Irving Rosow, *Socialization to Old Ag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 30.
- 21)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lated by A.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7), p. 88.
- 22) Herbert Blumer, "Society as Symbolic Interaction," in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 ed. Arnold Rose (New York : Houghton Mifflin, 1962), p.

- 23) Rosow, *Social Integration of the Aged*, p. 9 ; Rosow, *Socialization to Old Age*, p. 29.
- 24) Rosow, "And Then We Were Old," p. 7 ; Edna Palmore, "The Status and Integration of the Aged in Japanese Society," in *Aging, the Individual, and Society*, ed. Jill S. Quadagno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0), p. 50 ; 玄斗日, "韓國人の生活構造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 pp. 2 - 3. ; 玄斗日, "韓國의 老人問題"; 金聖順, 「老人福祉論」, pp. 12 - 24 ; 李效再, 池淳, 朴敏子, "韓國 低所得層 老人生活에 관한 社會·經濟 및 空間問題 研究," 韓國文化研究院 第39輯(1979), pp. 240 - 241 ; 金東一, "近代化와 老人問題" 「韓國老年學」第1輯(1980), pp. 39 - 40 ; 河相洛, "韓國老人의 社會福祉政策"; 李英夏, "韓國社會에 있어서 老人問題와 그 解決을 위한 方案," 공주사범대학논문집 제3집(1975): 200 - 204.
- 25) Cowgill, *op. cit.*, pp. 129 - 132.
- 26) Mandersheid, *op. cit.*, p. 96 ; Greg Arling, "Resistance to Isolation among Elderly Widow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 (January 1976) pp. 68 - 69.
- 27) Cowgill, *op. cit.*, p. 133 ; Moore, *op. cit.*, p. 35.
- 28) 崔弘基, "老人保護와 家族 및 社會倫理" 「峨山」(1980 秋季號), p. 17.
- 29) Cowgill, *op. cit.*, p. 136.
- 30) *Ibid.*, p. 136.
- 31) George C. Homans, *The Human Group*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World, 1950), p. 37 - 40 ; Vern L. Bengtson : Edward B. Olander ; and Annes A. Haddad, "The 'Generation Gap' and Aging Family Members : Toward A Conceptual Model," in *Time, Roles, and Self in Old Age*, ed. Jaber F. Gubrium (New York : Human Sciences Press, 1976), p. 248 ; Bert N. Adams, "Interaction Theory and Social Network," *Sociometry* 30 (March 1967), pp. 68 - 69 ; Bert N. Adams *Kinship in An Urban Setting* (Chicago : Markhan Publishing Co., 1968), pp. 63 - 64.
- 32) Charlotte Ikels, "The Coming of Age in Chinese Society : Traditional Patterns and Contemporary Hong Kong," in *Aging in Culture and Society*, ed. "

Christine L. Fry (New York : J. F. Bergin, 1980), p. 92 ; 玄斗日, “韓國老人的 生活構造에 대한 社會學的 研究,” p. 510.

- 33) 各 假設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는 필자의 학위논문 pp. 15 - 30 참조할것.
- 34) 성별에 영향에 대해서는 F. Elwell and Alice D. Maltbie -Crannell, “The Impact of Role Loss upon Coping Resource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6 (March 1981), p. 228 ; 金幸子, “서울시내 일부 노인들의 소외정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73), pp. 42 ; 金兌玄, “韓國에 있어서의 老人扶養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1), pp. 61 - 62 ; 朴美玲, *op. cit.*, p. 51 ; 金幸子, *op. cit.*, p. 43 을 참조할것. 건강상태의 영향에 대해서는 Morris L. Medly,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and Older : A Caus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31 (July 1976), pp. 453 - 454 참조할 것.
- 35) Fred N. Kerlinger, *Foundation of Behavioral Research*, 2nd ed.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3), p. 300.
- 36) 曆年齡을 사용하는 타당성에 관해서 상세한 토의는 필자의 논문 pp. 38 - 40 참조할 것.
- 37) 家族生活價值指向尺度는 필자의 논문 pp. 177 - 179 참조할것.
- 38) 家族에로의 社會的統合의 尺度는 필자의 논문 pp. 181 - 182 참조할것.
- 39)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전국노인 생활실태와 의식구조 조사 1차보고서」 p. 15 참조할것.
- 40 ~ 42) 공변변수분석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회귀계수의 동질성 테스트 (Test of homogeneity of regression coefficient)에 의하면 공변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은 같은 것으로 증명되어 공변변수분석에 의한 두집단 비교가 통계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되었다. 상세한 것은 필자의 논문 pp. 117 - 122 참조할것.
- 43) A.M. Shively and S. Shively. “Value Changes during A Period of Modernization - The Case of Hong Kong,” *Monograph* (Hong Kong :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ocial Research Center, 1972).